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성경: 요한복음 20:19-31

Tag: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20:19-31)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계시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아무래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믿기 어려운 믿음이니 더 귀하고, 그래서 더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인가?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제자들 중에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는 없다. 그렇다면 보지 못하고 믿은 복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다. 도마가 어쩌면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가 될 뻔 하였는데, 도마는 공개적으로 그 복을 발로 찼다.

아마 첫 번째 현신 하신 저녁, 당시의 분위기를 재빨리 눈치 채고 사실은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 믿는 것처럼 오버액션을 했더라면 도마는 복된 제자가 되었을까?

아니면(가정) 도마가 우연히 제자들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다면, 그는 실제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도 역시 다른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설교와 나사로 리허설을 깨닫지 못했고, 부활하게 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없었다. 그래서 사실 도마의 반응은 당시 대부분 제자들의 반응이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하지만, 우리가 엄밀히 따져본다면,(내가 분석하기로는)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고정된 세계관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들도 부활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믿음은 고작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초현실적 저승세계 상태에서 벌어질 사건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믿음으로 빌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보지 못하고(못하지만) 믿는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자.

(분명히 선 굵기) 그런데 이 믿음은, 볼 수 있는데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예 볼 수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을 칭찬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을 말한다. 어려서는 잘 믿지 못하지만, 중학생쯤 되면 집에 엄마가 없어도 어딘가는 엄마가 계실 것을 믿는다.

그런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비슷한 예로(두번째 선 굵기-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아닌 것.),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자력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자력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성으로 합리적 추론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물리적인 공기와 자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결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도 결코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란, 이런 합리적 추론이나 실험을 통해서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본인 혼자 보고 들었으며, 곁에 있는 자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결국 객관적인 증거가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믿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믿었다.

이처럼 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만으로는 총체적인 진실이나 진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과학적인 것이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과학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과학은 물리적이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비과학적인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이라고 모두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한계가 분명하니까.) 개인적 경험은 결코 실험으로 증명되지 못한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사실이 더 많다. 또,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도무지 증명해 내지 못하는 비밀이 너무 많다. 오늘날의 과학은 물리적이고 이성적인 척도를 통한 판단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 보지 못하지만 믿는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적 세상일 뿐이다. 보이지만 앎을 뿐, 존재하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궁한 세상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과제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자기가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면, 발견한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인가, 그 법칙을 발명하고 설계하고 제작한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그 사람은 고작 발견만 하였지만, 이미 태초부터 그 법칙은 존재하고 있었다. 태초부터 있던 것을 이제야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는 그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조차도, 자신들의 논문이 학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만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핵심적인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절대로 넣지 않는다. 과연 그가 믿음이 있는 과학자인가? 그에게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믿음이 있지만, 없는 척을 하는 것인가?

이제 세상은 한계점이 도달했다. 과학 실험실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초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전능한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이나,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 아니다.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아도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분이시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분의 요구를 들어야 하기도 한다. 물론 너무 당연하게 쌍방간에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시할 자유가 있으시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왜 이런 간단한 원리를 무시하는가? 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때가 되지 않아서라고 뭉니를 부리는가? 그런 뭉니가 신앙인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는 것인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무시하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쳐도 그렇다고 나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할 것인가? 하나님도 얼마든지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실 수 있다. 자기는 맨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가? 내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인가? 오히려 내가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닌가?

설령 쌍방간에 똑 같이 무시하고 미워했다고 치자.  
둘 중 누구에게 정당성이 있는가? 적어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시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가 무얼 원하는지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계관의 지평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도박이 아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  
헛 짚는 것이 아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니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 근거와 합리적 추론과, 필연적 결과와 인격적 관계경험으로 쌓인 신뢰로 얻어낸 확신이다.

<찬양예배>

제목 :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

성경: 야고보서 2장 14-26절

Tag: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리라 하리라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2:14-26)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들의 피를 무산시키소서  
한국교회의 분열을 회개함  
은혜로 정의를 덮었음을 회개함  
선의로 탐심을 덮었음을 회개함

쉬운 믿음으로 어려운 행함을 대신했으니 회개함

주의 보혈이 없이 어찌 믿을 수 있었으리요,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쉬운 믿음의 길을 주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헌신으로 나마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이겠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의 헌신을 보시고 보상하신다.

믿음 없는 헌신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헌신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은 곧 영생, 그러므로 영생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

당신이 살아 있음을,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살아있는 헌신으로 나마 증명하라.

믿음으로 구원을, 헌신으로 보상을.